

북한 최대의 명절, 김정일 생일

김연국 /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북

한에서 2월은 '축제의 달'이다. 김정일의 생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축제' 분위기는 연초부터 서서히 달아올라 2월 16일에 한차례 정점에 이르렀다가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까지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물론, 클라이맥스는 쏘주민이 경축한다는 김일성 생일 잔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죽은 이후 사정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김일성을 위한 행사는 아무래도 그가 죽은 7월의 추모제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김일성 생일 행사는 해마다 줄어들고 김정일 생일 행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작년 김일성 84회 생일의 경우, 각종 행사 수는 그 전 해의 21 개에서 15 개로 줄었고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던 '전국노동자예술소조경연대회', '청소년학생집단체조', '평양시청소년야회' 등 주민 동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됐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열리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평양에서만 개최됐다. 반면에, 김정일 54회 생일 행사는 예

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시작됐고, 모두 25 개가 진행됐었다.

금년의 김정일 55회 생일은 작년보다 더한 것 같다. 5주년 또는 10주년에 해당하는 '꺾어지는 해'는 성대하게 치른다는 북한식 관행도 작용하는 것 같다. 축제 개막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충성의 편지 전달 이어달리기' 첫 주자가 출발한 것이 작년 12월 24일이었다. 예년보다 빨랐다는 작년보다도 보름이 빠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가를 앞세운 주자들이 먼저 '충성의 편지'를 채택한 뒤 다른 지역 주자에게 릴레이 형식으로 이를 전달, 생일 당일 평양에서 최종 전달식을 갖는다. 전국 각지를 도는 주자들이 축제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는 '김정일생일경축위원회' 결성이 연초부터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친북 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인데, 사실 대내외 선전용으로는 이만한 소재가 없다. 북한 언론 매체들은 해외에서의 경축 동향은 빠짐없이 보도한다.

올해는 파키스탄내 친북 단체들이 이글라마바드에서 '김정일생일기념 전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가나, 마다가스칼, 짐바브웨, 페루, 몽골, 인도, 나이지리아, 파나마, 도미니카, 멕시코, 몰티, 네팔 등지에서 경축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통일원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생일 관련 행사가 예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37개국 친북 단체들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었다.

문화·체육 행사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1월 15일에는 조선기록과학연화촬영소가 김정일 기록 영화 '천하제일봉'을 공개했고, 1월 22일에는 '2·16예술상' 개인 경연 개막 모임 행사가 성악·기악·무용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2월 초에는 기념 우표와 기념 우편 엽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일花 전시회'가 처음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학술·예술 행사는 생일 열흘 전부터 집중적으로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중앙미술전시회, 중앙연구토론회, 김정일위대성 및 혁명업적연구토론회가 인민무력부, 여맹, 농근맹, 직맹 등 각급 기관과 단체의 주최로 열렸었다.

이런 행사만이라면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그런대로 이해해줄 만하다. 생일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평소에는 보기 힘든 선

물이 안겨지는 것을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싫어할 이유도 없을 것같기도 하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에게서 받는 이상으로 바치기 위해 쏘주민이 얼마나 시달리는가를 들여다본다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각 공장·기업소별로 벌어지는 학습경연회와 예술 공연을 보아도 단순히 '놀이'나 '축제'의 차원이 아니다. 경쟁 심리를 유발해 생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은연중 김정일 우상화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학습경연회는 주로 군 소재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에서 군당 선전부 지도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공장 기업소별로 선발된 약 30명의 대표들이 연구실 중앙 연단에 모여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쪽지가 담긴 상자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답변하고, 선택된 쪽지는 상자 속에 재투입해 다른 사람이 선택할 경우 답변 내용이 비교될 수 있게 한다. 행사는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하루 진행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쪽지에 기재된 과제의 내용은 김정일 찬양 노래의 박자·음정·가사의 정확도 여부 측정, 신년사에서 제기된 과업의 인지도, 경공업 부문에 하달된 김일성 부자의 방침 숙지 여부, 선전용 책자의 저자 및 수록 내용, 지방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김일성 부자 교시가 하달된 시기 및 구체

적 내용 등이다.

道黨에서는 공장·기업소별로 소속 직장의 특성에 맞는 '예술 공연'을 준비토록 지시한다. 공연 내용은 김정일 찬양 노래(합창, 독창, 이중창, 하모니카 독주 등)와 만담(계급 교양, 김일성 부자 찬양) 및 무용 등이다. 문화회관에서 해당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과 군당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며 군내 경연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소속 공장 기업소 대표들은 다시 道黨 선전부에서 주관하는 道 경영 대회에 참가한다. 우승자에 대한 상품으로는 '김정일 동지 생일 00돌'이라고 적힌 학습 노트 등 일용품이 주로 수여된다.

하지만, 주민들을 진짜 성가시게 하는 것은 이런 경연이 아니라 따로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금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김정일의 생일 행사 선물비를 확보하기 위해 1994년 말부터 각 조직에 하달한 일종의 내부 지침으로 금을 모아 판매해 선물비를 조달하라는 것이다. 금계획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군당 등 조직별로 연간 1kg씩 할당량을 주고, 할당량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단위 책임자들에게 대한 비판은 물론 철직(파면)까지 시킨다.

때문에 각 조직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조직별로 30여 명 정도의 인원을 차출하여 평북 운산, 회

창 등 금 산지(금돈판으로 호칭)로 직접 사금이나 금을 캐러 보내지만, 목표 대비 할당량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어느 귀순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국의 '금계획' 지시에 비판을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비판론의 내용은 이렇다. "다른 나라는 후대를 위해 금과 같은 지하 자원은 있어도 캐지 않고 두는데, 우리는 있는 대로 다 캐니 문제다", "우리 금만 나가면 세계 금 시세가 뚝 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금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각종 강요된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중앙과 각 시도별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라는 곳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북한은 1992년 2월 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하고 국기까지 게양한다)답게 당과 국가 조직이 총동원된다. 중앙위원회는 대개 정무원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준비위는 최소한 4~5개월 전, '꺾어지는' 해에는 1년 전에 구성되기도 한다.

준비위원회는 생일 때 주민들에게 줄 선물 등에 대한 수요량을 측정해 이를 해당 생산 기관에 할당하고 생산 과정을 감독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물품은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무역 회사 등에 수입하도록 시킨다. 수입 물품은 대개 식량과 육류가 주종을 이루지만, 고위 간부들에게 줄 술이나 고급 전자 제품 등

도 포함된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당에서 60~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기업소 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소 근무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이나 무역일꾼들은 적잖은 '충성의 선물' 비용을 바쳐야 한다. 대사관 무역참사들 가운데는 수만 달러를 내놓아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돈만 내놓으면 어떻게 벌어들인 것인지는 묻지 않고 현금 액수가 충성과 능력의 잣대가 됨은 물론이다. 특히, 금년에 북한은 1월 20일을 전후해 중국에 대규모 무역일꾼을 파견해 '선물 조달'을 독려하고 있다.

수입 물품은 대개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오지만, 고급 간부용으로는 미국산을 수입하기도 한다. 완제품의 경우, 늦어도 2월 10일쯤까지는 국내에 들어와 14~15일에 배포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줄 생일 선물 물품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사탕이다. 사탕 가루를 수입해 공장에서 완제품 사탕 과자로 만들어 '김정일의 은총'이라고 배포한다. 영양 부족 상태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굳것질 이상의 중요한 영양소가 된다고 한다.

올해 김정일 생일이 주의를 끄는 것은 행사 내용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생일 행사는 김정일의 국가 주석 취임을 앞둔 리허설이 될 수도

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일본을 방문 중인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은 올 7월 또는 10월경 김정일의 국가 주석 취임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생일을 '성대히'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김정일은 발목이 계속 잡혀 있다. '인민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벌였던 미국 곡물 회사 카길社와의 쌀 50만 톤 교섭은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쌀이 아닌 다른 '선물'로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김정일 생일 축하 행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75년부터였다. 이때부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82년에는 휴무일로 지정됐고, 1992년 2월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을 외부에서 주시하는 사람에게 '2·16'은 시선을 돌릴 수 없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위대한 지도자' 생일에 관심을 쏟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